

광주 온 2015 광주U대회 홍보대사 손연재

“내년엔 대학생...U대회 출전 광주 빛낼게요”

리듬체조 봄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길

위촉장 받고 광주시청 로비서 팬사인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대사를 맡아 기쁘요.”

‘체조 요정’ 손연재가 20일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손연재는 이날 광주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쁘고 영광스럽다.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이 잘 하는 나아가 있는데 대학생 때 하는 유니버시아드는 거의 올림픽 수준으로 봄도 될 정도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 저도 준비

를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언급했다.

런던올림픽을 통해 ‘국민 여동생’은 물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손연재는 초심의 자세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연재는 “러시아에서 함께 운동을 했던 어린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고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다”며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통해 일어난 리듬체조 봄이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파악

했다.

손연재는 “런던 올림픽을 통해 리듬체조라는 종목이 많이 알려져서 운동을 시작하는 선수가 많다고 해서 기쁘다.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체조를 하기에 환경이 부족하지만 잘하는 선수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후배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있으면 한다”며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선수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형적인 면에서도 요즘 어린 선수들은 유럽 체형도 많다. 세계적인 환경만 갖춰진다면 우리나라로 체조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3년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는 손연재는 대학생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손연재는 “시즌이 4~5월에 많고 3월에도 대회가 있어서 한국에는 많이 머무르지 못 할 것 같지만 대학 생활을 충실히 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운태 광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손연재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사인회를 열고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5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는 손연재에 앞서 지난 8월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양하선(체조), 기보배(양궁), 최은숙(펜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광주 U대회 홍보대사는 국내외 주요 이벤트, 특강 및 재능기부 행사 등에 참가하며 웹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광주 U대회를 알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복덩이’ 앤서니·소사 재계약

KIA 타이거즈, 연봉 각각 25% 인상

‘복덩이’ 외국인 콤비 앤서니와 소사는 20일 KIA 타이거즈와 재계약을 맺었다.

앤서니는 25% 인상된 37억5000달러(계약금 7만5000달러, 연봉 30만달러)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고, 소사는 25% 인상된 30만달러(계약금 5만달러, 연봉 25만달러)에 KIA 잔류를 결정했다.

앤서니는 올 시즌 선발과 중간(5경기)으로 32경기에 나서 3.83의 방어율로 11승13패1 세이브를 기록했다. 171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KIA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다.

23경기에 등판한 소사는 3.54의 방어율로 9승8패를 기록했다. 1차례의 완봉승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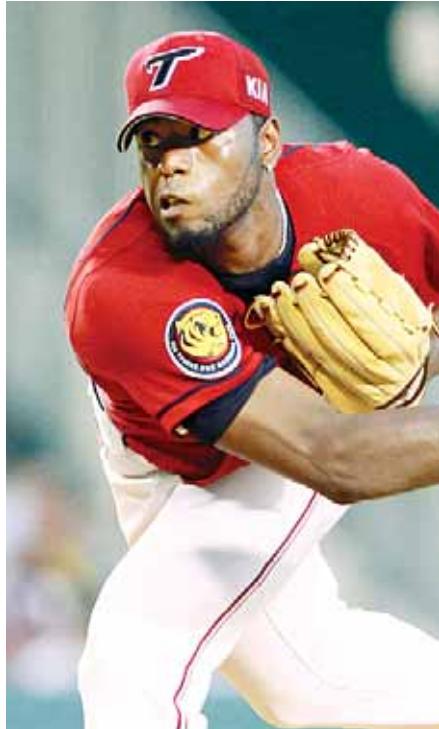
해 4경기에서 완투상을 선보였다.

KIA 막강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두 선수는 뛰어난 친화력과 활발한 성격으로 팀워크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다시 KIA타이거즈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난 시즌 아쉬움을 기억하고 2013시즌에는 더욱 뛰어난 성적을 올려 팀의 우승에 일조하는 투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는 이들과 계약을 마침에 따라 2013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 중 36명과 재계약(재계약율 75%)을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앤서니

소사

광주 장애인 선수돕기 바자회

김영건 등 패럴림픽 선수들 유니폼 등 판매

오늘 치평동 게이트볼 경기장

광주장애인선수들이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바자회를 연다.

광주장애인체육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30분 서구 치평동 게이트볼 경기장 장애인탁구실업팀 훈련장 앞에서 광주장애인선수돕기 바자회를 연다.

이번 바자회는 광주장애인체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의 김공용 감독을 중심으로 해 오후 4시30분까지 계속된다.

곽호근, 김영건, 조재관, 김민규, 김정길 등 지난 런던 패럴림픽에서 금, 은, 동 2개의 성적을 낸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

매킬로이 올해의 선수

미국 골프기자협회 선정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미국 골프기자협회(GWAA) 선정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GWAA는 총 194표 가운데 매킬로이가 190표를 획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3표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우승자인 브랜트 스니데커(미국)가 차지했고 남은 한 표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돌아갔다.

매킬로이는 2012년 PGA 투어, 유럽투어,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 영국 골프기자협회의 올해의 선수상을 석권했다.

올해의 여자 선수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전국 야구장 수 260개

1년 새 99개 늘어

전국 야구장 수가 지난해보다 99개 늘어난 260개로 집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야구발전실 행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의 야구장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야구발전실행위원회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전국 야구장 현황을 조사했지만 자자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에는 35개 자자체에서 신설 구장을 포함해 52개의 야구장이 새로 파악됐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야구장 47개가 조성됐다. 2012년에만 총 99개의 야구장이 늘어난 셈이다. 이로써 전국의 야구장 수는 지난해 161개에서 260개로 늘었다.

추가된 야구장은 경기도가 22개로 가장 많다. 경남(16개), 대구(12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지역은 하나도 없었다.

/연합뉴스



‘체조 요정’ 손연재가 20일 광주 U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위해 광주시청을 찾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 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셔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원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당컴 www.jejube.com

씨스타크루즈호
2013년
선상 해맞이 축제

고객감사 할인

20,000원...10,000원

선착순 45명

전화문의만
받습니다.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 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팀,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선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